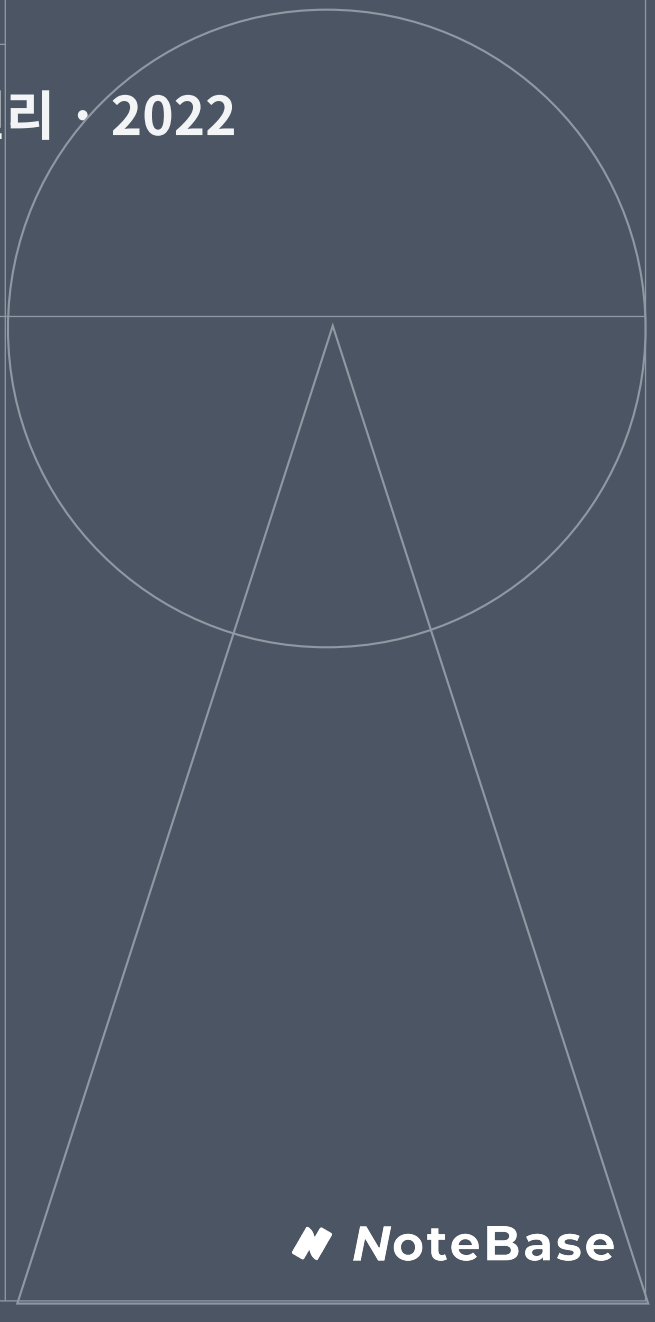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2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2

문 1.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다음 거래가 회계등식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 ₩10,000을 출자받았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10,000 증가하고, 자본이 ₩10,000 증가한다.

② 사무실에 사용할 비품 ₩10,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5,000을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5,000 증가하고, 부채가 ₩5,000 증가한다.

③ 교육컨설팅 용역을 ₩10,000에 제공하였는데 이 중 ₩3,000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자산이 ₩10,000 증가하고, 자본이 ₩10,000 증가한다.

④ 사무실 임차료 ₩5,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로 인해 부채가 ₩5,000 증가하고, 자본이 ₩5,000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임차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이 발생하여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이 나가므로 **자산도 5,000원 감소**한다. 이 거래에서 **부채는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회계등식은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거래의 영향을 판단할 때는 각 계정의 증감과 자산·부채·자본 각각의 순증감을 구분한다.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킨다.

① O: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 10,000원을 받으면 자산인 현금이 10,000원 증가하고, 주주의 출자로 자본도 10,000원 증가한다. 주주의 출자는 **수익이 아니라 자본의 직접 증가**이다.

② O: 비품을 취득하여 자산이 10,000원 증가하지만 현금 지급으로 자산이 5,000원 감소하므로, **자산의 순증가액**은 10,000 − 5,000 = 5,000원이다. 나중에 지급할 잔액 5,000원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되므로 부채도 5,000원 증가한다. 비품 취득 자체는 비용 발생이 아니므로 이 거래로 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③ O: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대가 10,000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현금 3,000원과 나중에 받을 매출채권 7,000원이 생겨 자산이 총 10,000원 증가한다. 수익은 이익을 통해 자본을 증가시키므로 자본도 10,000원 증가한다.

④ X: 사무실 임차료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 5,000원 감소하여 자산이 감소한다. 동시에 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이익을 통해 자본도 5,000원 감소한다. 나중에 지급할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부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가 5,000원 증가'를 **'자산이 5,000원 감소'**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보험료 지급 시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20×1년 재무상태표상 기초와 기말 선급보험료는 각각 ₩200,000과 ₩310,000이다. 20×1년 중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1,030,000이라면,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료 비용은?

① ₩520,000

② ₩920,000

③ ₩1,030,000

④ ₩1,1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보험료를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으므로, 기초 선급보험료와 당기 지급액의 합계에서 **기말에 남은 선급보험료를 차감**하면 당기 비용이 된다. 20×1년 보험료 비용은 920,000원이다.

계산 과정

선급보험료는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지만 아직 보험기간이 지나지 않아 자산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주)한국은 지급액 전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므로, 보험기간이 지난 부분을 **선급보험료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초 선급보험료 200,000원에 20×1년 중 자산으로 처리한 지급액 1,030,000원을 더하면 1,230,000원이다. 이 금액은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부분과 기말에도 선급보험료로 남길 부분의 합계이다.

기말 선급보험료 310,000원은 **다음 기간 이후에 보험혜택을 받을 부분**이므로 당기 비용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20×1년 보험료 비용은 200,000 + 1,030,000 − 310,000 = 92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②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재평가감소액의 인식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었다. 재평가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동일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그 잉여금을 줄인다.

선지별 해설

① O: 재평가모형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적용한다. 재평가일에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산정한다. 즉, 재평가 후에도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을 반영한다.

② O: 재평가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한다. 다만 **동일 자산에 대해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을 되돌리는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과거 손실을 회복하는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증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③ X: 재평가감소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 한도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초과하는 감소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이 30만 원이고 재평가감소액이 50만 원이면, 30만 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머지 20만 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는 이 원칙과 예외의 인식 항목을 반대로 설명했다.

④ O: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 그 자산이 속한 **동일 유형 전체**를 재평가한다. 유형은 토지, 건물 등 성격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을 뜻한다. 이는 가치가 오른 일부 자산만 골라 재평가하여 같은 유형 안에 서로 다른 측정기준의 금액이 혼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NoteBase

문 4.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③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④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제호·출판표제·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에 쓴 지출은 사업 전체를 개발하는 원가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사업 전체의 개발원가와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지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하며, 관련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O: 내용연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다.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생긴 무형자산은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을 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내용연수도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 등으로 실제 예상사용기간이 더 짧다면 **더 짧은 예상사용기간**을 내용연수로 정한다.

③ O: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매 기간 같은 금액을 배분한다.

④ O: 무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이 포함된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와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원가는 **판매 촉진이나 사업 확대를 위한 지출**이므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액면이자율 연 10%,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조건의 사채를 ₩951,980에 발행하였다. 사채의 발행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일치한다고 할 때, (주)한국이 사채의 만기일까지 3년간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① ₩300,000

② ₩348,020

③ ₩360,000

④ ₩368,02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채의 총 이자비용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뿐 아니라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도 포함된다. 3년간 지급이자 300,000원에 할인발행차금 48,020원을 더하면 총 이자비용은 348,020원이다.

계산 과정

유효이자율법에서는 매년 기초 사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 12%를 곱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현금 지급이자와의 차이는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으로 처리되어 사채 장부금액을 늘린다. 만기에는 장부금액이 액면금액과 같아지므로, **할인발행차금 전액이 만기까지 이자비용에 포함**된다.

1. 3년간 지급이자: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금액에 액면이자율 10%를 적용**한 1,000,000원 × 10% = 100,000원이다. 20×1년 1월 1일 발행 후 만기까지 3년간 지급하므로 지급이자 합계는 100,000원 × 3년 = 300,000원이다.

2. 할인발행차금: 액면금액 1,000,000원보다 적은 951,980원에 발행했으므로 할인발행차금은 1,000,000원 − 951,980원 = 48,020원이다. 이는 현금 지급이자 외에 3년간 추가로 인식하는 이자비용의 합계이다.

3. 총 이자비용: 지급이자 합계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합계를 더하므로 300,000원 + 48,020원 = 348,020원이다.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금액)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②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

③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현행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 계약은 취소·갱신·변경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④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거래가격에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므로, 고객에게 받은 금액 전부가 거래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변동대가는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받을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특정 불확실성이 변동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에는 선택한 **하나의 방법을 계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한다. 이는 추정방법의 일관성을 뜻하며, 새로운 정보에 따라 추정금액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국가를 대신해 고객에게서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된다'는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거래가격은 **현행 계약이 약속대로 이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약속대로 이전하고, 계약은 취소·갱신·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계약의 취소나 갱신·변경을 미리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④ O: 할인·환불·성과보상 등으로 대가가 달라지면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면,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거래가격 산정에 반영한다.

NoteBase

문 7.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②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④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현재의무의 이행 지출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건은 발생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충당부채 금액의 추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미래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므로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이때 기준은 **보고기간 말 현재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이다. 기업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추정한다.

② O: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앞으로 영업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일 뿐, 그 예상만으로 과거 사건에서 발생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③ X: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칠 미래 사건에 대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미래 사건을 반영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기술의 적용 경험이 쌓여 의무 이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영향을 고려한다. 단순한 기대와 달리, 선지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이므로 '추정하지 않는다'를 '추정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상 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충당부채를 평가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가까운 시기에 지급하는 경우와 먼 미래에 지급하는 경우의 현재 부담이 다르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주)한국의 20x1년 상품 매입 및 매출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총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재고자산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고자산 수량결정은 계속기록법에 의한다)

일자	구분	수량	단가
1월 1일	기초재고	20개	₩150
5월 1일	매입	30개	₩200
7월 1일	매출	25개	₩300
9월 1일	매입	20개	₩180
11월 1일	매출	25개	₩320

① 기말재고자산: ₩3,000, 매출총이익: ₩5,900

② 기말재고자산: ₩3,000, 매출총이익: ₩6,500

③ 기말재고자산: ₩3,600, 매출총이익: ₩5,900

④ 기말재고자산: ₩3,600, 매출총이익: ₩6,5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므로, 기말에는 9월 매입분 20개가 남아 기말재고자산은 3,600원이다. 매출액 15,500원에서 매출원가 9,000원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6,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계속기록법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원가와 남은 재고**를 계산한다. 재고자산 감모와 평가손실이 없으므로, 남은 수량에 해당 취득단가를 곱해 기말재고자산을 구한다.

7월 1일 매출원가: 판매한 25개에는 기초재고 20개와 5월 1일 매입분 5개의 원가를 배분한다. 매출원가는 20개 × 150원 + 5개 × 200원 = 4,000원이다. 판매 후에는 5월 매입분 25개가 남으며, 그 원가는 25개 × 200원 = 5,000원이다.

11월 1일 매출원가: 9월 1일에 20개를 개당 180원에 매입했으므로, 판매 직전에는 5월 매입분 25개와 9월 매입분 20개가 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단가가 낮은 9월 매입분보다 먼저 매입한 5월분**의 원가를 배분한다. 판매수량이 25개이므로 매출원가는 25개 × 200원 = 5,000원이고, 9월 매입분 20개가 그대로 남는다.

기말재고자산: 남은 재고는 9월 매입분 20개이므로 20개 × 180원 = 3,600원이다. 수량으로도 기초 20개 + 매입 30개 + 매입 20개 − 매출 25개 − 매출 25개 = 20개로 확인된다.

매출총이익: 표의 매출 행에 적힌 단가는 판매단가이므로, 매출액은 7월의 25개 × 300원 = 7,500원과 11월의 25개 × 320원 = 8,000원을 합한 15,500원이다. 연간 매출원가는 4,000원 + 5,000원 = 9,0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15,500원 − 9,000원 = 6,500원이다.

기말재고자산 3,600원과 매출총이익 6,500원의 연결은 ④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20x1년 1월 1일 설립한 (주)한국의 자본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자	거래 내역
1월 1일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20(액면금액 ₩1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 ₩700을 현금 지급하였다.
7월 1일	보통주 1,000주를 주당 ₩90(액면금액 ₩100)에 발행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 1월 1일 현금 ₩120,000이 증가한다.

② 1월 1일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 ₩700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③ 7월 1일 자본금 ₩90,000이 증가한다.

④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표시될 금액은 ₩9,30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1월의 주식발행초과금 20,000원에서 **주식발행 직접비용 700원**을 차감하면 19,300원이 남는다. 여기서 7월 할인발행으로 생긴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원을 상계**하므로 연말 주식발행초과금은 9,3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월 1일 주식 발행으로 받은 현금은 1,000주 × 120원 = 120,000원이지만, 같은 날 직접비용 7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따라서 이날 현금의 **순증가액은 119,300원**이다.

② X: 주식발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이 문제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1,000주 × (120원 − 100원) = 20,000원이므로, 직접비용 700원을 차감한 주식발행초과금은 19,300원이다.

③ X: 자본금은 발행대금이 아니라 **발행주식 수 × 주당 액면금액**으로 계상한다. 따라서 7월 1일 자본금 증가액은 1,000주 × 100원 = 100,000원이다. 받은 현금 90,000원과 자본금의 차이 10,000원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④ O: 7월 1일 액면금액 100원인 주식을 90원에 발행했으므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1,000주 × (100원 − 90원) = 10,000원이다. 이는 기존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한다. 1월 직접비용 차감 후 남은 주식발행초과금 19,300원에서 10,000원을 차감하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주식발행초과금은 9,300원이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 연수합계법, 월할 상각)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20×3년 3월 31일 ₩4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장부금액과 처분손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① 장부금액: ₩35,000, 처분손익: 손실 ₩5,000

② 장부금액: ₩35,000, 처분손익: 이익 ₩5,000

③ 장부금액: ₩45,000, 처분손익: 손실 ₩5,000

④ 장부금액: ₩45,000, 처분손익: 이익 ₩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연수합계법을 취득일부터 월할 적용하면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5,000원**이다. 장부금액은 45,000원이며, 처분대금 40,000원이 이보다 적으므로 처분손실 5,000원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 기준: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사용연차별 상각률을 곱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80,000 − 5,000 = 75,000원이고, 내용연수 5년의 연수합계는 5 + 4 + 3 + 2 + 1 = 15이다. 첫 사용연차에는 5/15, 다음 사용연차에는 4/15의 상각률을 적용하며, **각 사용연차는 취득일부터 12개월씩** 구분한다.

첫 12개월의 감가상각비: 20×1년 10월 1일부터 20×2년 9월 30일까지는 첫 사용연차 전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75,000 × (5)/(15) = 25,000원이다.

다음 6개월의 감가상각비: 20×2년 10월 1일부터 처분일인 20×3년 3월 31일까지는 두 번째 사용연차 중 6개월이다. 두 번째 사용연차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75,000 × (4)/(15) = 20,000원이므로, 이 중 **6개월분만 월할 상각**한다.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20,000 × (6)/(12) = 10,000원이다.

처분시점의 장부금액: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0 + 10,000 = 35,000원이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80,000 − 35,000 = 45,000원이다.

처분손익: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처분시점의 장부금액을 뺀 금액이다. 40,000 − 45,000 = −5,000원이므로 **처분손실 5,000원**이 발생한다. 장부금액 45,000원과 처분손실 5,000원을 연결한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휴대전화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다음의 거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40,000으로 산정하였다. 다음 거래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미수이자수익 발생 ₩10,000
선수수익의 수익실현 ₩40,000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20,000
매입채무의 현금상환 ₩7,000
미지급이자비용 발생 ₩3,000

① ₩ 50,000
② ₩ 87,000
③ ₩ 100,000
④ ₩ 11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은 **현금 수수 여부가 아니라 수익·비용의 발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누락된 수익 50,000원을 더하고 이자비용 3,000원을 빼면 당기순이익은 87,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당기에 인식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누락 거래 반영 전 당기순이익 40,000원에 각 거래로 추가 인식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미수이자수익 발생 10,000원: 아직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당기에 발생한 이자수익**이므로 수익 10,000원과 미수이자 자산을 함께 인식한다.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한다.

선수수익의 수익실현 40,000원: 선수수익은 대금을 미리 받았지만 수익으로 인식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채로 기록한 금액이다. 이번에 수익이 실현되었으므로 **선수수익 부채를 줄이고 수익을 인식**한다. 당기순이익은 40,000원 증가한다.

매출채권의 현금회수 20,000원: 매출채권은 매출을 인식할 때 이미 기록한 자산이다. 회수 시에는 현금이 늘고 매출채권이 줄어드는 **자산 간 대체**만 일어나므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매입채무의 현금상환 7,000원: 현금 자산과 매입채무 부채가 각각 7,000원 감소한다. **기존 채무의 상환**이므로 상환액을 새로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미지급이자비용 발생 3,000원: 현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당기에 발생한 이자비용**이므로 비용 3,000원과 미지급이자 부채를 함께 인식한다. 당기순이익은 3,000원 감소한다.

추가 수익은 10,000 + 40,000 = 50,000원이고, 추가 비용은 3,000원이므로 누락 거래로 인한 순이익 증가액은 47,000원이다. 따라서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40,000 + 50,000 − 3,000 = 87,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토지와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1,000,000에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 취득시점 토지의 공정가치는 ₩750,000이며 건물의 공정가치는 ₩500,000이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0,000이며,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물을 감가상각한다(월할 상각, 원가모형 적용). 20×3년 1월 1일 (주)한국은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20×3년 1월 1일에 인식하는 손실은?

① ₩120,000

② ₩280,000

③ ₩360,000

④ ₩4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괄 취득한 금액을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400,000원이다. 여기서 2년간 감가상각한 120,000원을 차감한 **철거 시점의 장부금액 280,000원**을 손실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건물의 취득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고 모두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총 취득대가 1,000,000원을 **취득시점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한다. 공정가치 합계는 750,000 + 500,000 = 1,250,000원이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1,000,000 \times \frac{500,000}{1,250,000} = 400,000$원이다.

감가상각누계액: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400,000 - 100,000}{5} = 60,000$원이다.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월 1일 철거 전까지의 사용기간은 **24개월, 즉 2년**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 \times \frac{24}{12} = 120,000$원이다.

철거 직전 장부금액: 원가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므로, 건물의 장부금액은 400,000 − 120,000 = 280,000원이다. 이는 취득원가 중 아직 비용으로 배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다.

철거손실: 계속 사용하던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므로 건물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손실로 인식한다. 잔존가치 100,000원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정할 때 반영한 추정액**이므로 철거 시 장부금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철거비용도 없으므로 인식할 손실은 28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의 20×1년 12월 31일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 12월 31일에 인식해야 할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장부상 재고수량 5,000개
◯ 실지재고 조사수량 4,500개
◯ 재고자산 단위당 취득원가 ₩500/개
◯ 재고자산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350/개

① 재고자산감모손실: ₩175,000, 재고자산평가손실: ₩175,000
② 재고자산감모손실: ₩175,000, 재고자산평가손실: ₩750,000
③ 재고자산감모손실: ₩25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675,000
④ 재고자산감모손실: ₩250,000, 재고자산평가손실: ₩7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부족한 수량에 취득원가**를 곱한 250,000원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실제로 남아 있는 수량에 단위당 가치 하락액**을 곱한 675,000원이다.

계산 과정

재고자산감모손실: 장부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재고의 취득원가를 손실로 인식한다. 부족한 수량은 5,000개 − 4,500개 = 500개이므로, **감모수량에 단위당 취득원가**를 곱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500개 × 500원/개 = 250,000원이다.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350원이 취득원가 500원보다 낮으므로, 단위당 가치 하락액은 500원 − 350원 = 150원이다. 이 금액을 **감모 후 실제로 남은 4,500개**에 적용하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4,500개 × 150원/개 = 675,000원이다. 이미 감모손실로 처리한 500개는 평가손실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250,000원과 재고자산평가손실 675,000원의 연결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기말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 우표	₩4,000	○ 당좌차월	₩50,000
○ 당좌예금	₩10,000	○ 타인발행 수표	₩20,000
○ 지폐와 주화	₩12,000	○ 우편환증서	₩5,000
○ 수입인지	₩8,000	○ 환매채(취득 당시 60일 이내 환매조건)	₩40,000
○ 보통예금	₩16,000		

① ₩98,000

② ₩103,000

③ ₩116,000

④ ₩166,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폐·주화, 요구불예금, 타인발행 수표, 우편환증서를 합한 현금은 63,000원이다. 여기에 취득 당시 **60일 이내 환매조건인 환매채** 40,000원을 현금성자산으로 더하므로 보고금액은 **103,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현금의 범위와 금액: 현금에는 지폐와 주화뿐 아니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도 포함한다. 따라서 지폐와 주화 12,000원, 당좌예금 10,000원, 보통예금 16,000원, 타인발행 수표 20,000원, 우편환증서 5,000원을 합한다. 현금 합계는 12,000 + 10,000 + 16,000 + 20,000 + 5,000 = 63,000원이다.

현금성자산의 범위와 금액: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가치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투자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의 환매채는 취득 당시 60일 이내 환매조건이므로 40,000원을 현금성자산에 포함한다.

우표·수입인지의 처리: 우표 4,000원과 수입인지 8,000원은 각각 우편요금과 세금·수수료 등의 납부에 쓰이는 증표로, 일반적인 지급수단인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계에 넣지 않는다.

당좌차월의 처리: 당좌차월 50,000원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에서 빌린 금액으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이다. 이 문제는 기말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묻고 있으므로 현금에 더하거나 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한다.

보고금액 계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과 현금성자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63,000 + 40,000 = 103,000원이므로 기말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금액은 ②의 103,000원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주)한국이 20×1년과 20×2년에 (주)대한의 지분상품을 거래한 내용이다.
동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20×1년			20×2년
취득금액	매입수수료	기말 공정가치	처분금액
₩1,000	₩50	₩1,100	₩1,080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50 증가한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20 감소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30원은 수수료를 포함한 취득원가와 처분금액의 차이인 **누적이익**이지 20×2년의 감소액이 아니다.
20×2년 평가손실은 20원이며, 처분 시 누적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전기말 50원에서 0원이 되어 **50원 감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매입수수료 5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금융자산은 1,000원으로 인식한 뒤 기말 공정가치 1,100원으로 평가하므로 평가이익은 1,100 − 1,000 = 100원이다. 평가이익 100원에서 수수료 비용 50원을 빼면 20×1년 당기이익은 50원 증가한다.

②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최초 장부금액은 1,000 + 50 = 1,050원이고, 기말 공정가치 1,100원과의 차이 5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평가이익이 자본에 누적되므로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50원 증가한다.

③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0×1년 말에 이미 1,10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20×2년 처분손익은 **전기말 장부금액 1,100원**과 처분금액을 비교한다. 처분금액이 1,080원이므로 1,080 − 1,100 = −2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20×2년 당기이익이 20원 감소한다. 최초 취득금액과의 차이를 다시 당기손익으로 잡으면 전기에 인식한 평가이익이 중복된다.

④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처분 시점까지의 공정가치 하락 1,100 − 1,080 = 20원을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전기말 누계액 50원은 처분 직전 30원이 된다. 이 30원은 처분금액 1,080원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취득원가 1,050원을 뺀 **누적이익이며, 연간 감소액이 아니다**. 지분상품의 누적이익은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누적이익 3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누계액은 0원이 되므로,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전기말 대비 **50원 감소**한다. 자본 내 대체를 하지 않으면 누계액은 30원이 남아 감소액은 20원이므로, 이 경우에도 '30원 감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②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③ 공정가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며,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한다.

④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시장참여자 간 이전가격이므로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부채의 발생·인수 시 거래원가로 감소시키지 않으며, 이전·결제 시 발생할 거래원가도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그 자산을 얻기 위해 발생한 원가이다. 따라서 **취득·창출에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하며, 측정일 현재의 가격이 아니라 취득·창출 당시의 거래를 기초로 한다.

② O: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최종 처분으로 기업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이고,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면서 기업이 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두 측정기준은 해당 기업이 예상하는 현금흐름 등을 이용하므로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공정가치와 구별된다.

③ X: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이다. 부채의 발생·인수 시 거래원가로 공정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으며, 부채의 이전·결제 시 발생할 거래원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거래원가는 부채 자체의 이전가격과 구별되므로, 선지의 두 표현은 모두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드는 원가이다. 따라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역사적 원가와 모두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드는 원가를 기초로 하지만, 현행원가는 취득 당시가 아니라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한다.

NoteBase

문 17.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에서 제외한다.

②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④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직접 사용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려는 부동산과 구분한다.

① O: 장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반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토지라는 자산의 형태가 같아도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② O: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면,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는 재고자산을 판매한 경우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면 이익, 작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③ X: 공정가치모형에서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공정가치 변동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는 표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장래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는 자가사용이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단기 판매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임대 목적이 확정되어야만 투자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다음 (주)한국의 20×1년 자료를 이용한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0	○ 기말상품재고액	₩12,000
○ 당기상품총매입액	₩20,000	○ 매입운임	₩2,000
○ 매입에누리	₩1,000	○ 매입환출	₩600
○ 매입할인	₩400	○ 당기상품총매출액	₩27,000
○ 판매운임	₩2,500	○ 매출에누리	₩1,800
○ 매출환입	₩1,200	○ 매출할인	₩500
○ 판매사원 급여	₩1,000		

① 매출총이익: ₩5,500, 영업이익: ₩2,000

② 매출총이익: ₩5,500, 영업이익: ₩4,500

③ 매출총이익: ₩8,000, 영업이익: ₩4,500

④ 매출총이익: ₩8,000, 영업이익: ₩7,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입운임은 **상품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판매운임과 판매사원 급여는 **판매비**로 처리한다. 순매출액 23,500원에서 매출원가 18,000원을 빼면 매출총이익은 5,500원이며, 판매비 3,500원을 추가로 빼면 영업이익은 2,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순매입액: 상품을 사들이는 데 든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매입에누리·매입환출·매입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당기순매입액은 20,000 + 2,000 − 1,000 − 600 − 400 = 20,000원이다.

2.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에 당기순매입액을 더하면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가 된다. 이 중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의 원가를 차감**하면 실제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구할 수 있다. 매출원가는 10,000 + 20,000 − 12,000 = 18,000원이다.

3. 순매출액과 매출총이익: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매출환입·매출할인을 차감한다. 순매출액은 27,000 − 1,800 − 1,200 − 500 = 23,500원이다. 매출총이익은 상품 판매로 얻은 순매출액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뺀 금액이므로, 23,500 − 18,000 = 5,500원이다.

4. 영업이익: **판매운임과 판매사원 급여는 판매비**이므로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매출총이익에서 차감한다. 주어진 판매비는 2,500 + 1,000 = 3,500원이며, 영업이익은 5,500 − 3,500 = 2,000원이다.

매출총이익 5,500원과 영업이익 2,000원의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하여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한번 선택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금융자산의 기본 측정 범주는 **당기손익-공정가치**이다.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범주를 적용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② X: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고, 이를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업모형이라면 원칙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가 목적이라는 조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를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③ X: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면서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모형이라면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와 원리금 지급 조건은 같지만, 현금흐름 수취뿐 아니라 매도도 사업모형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각후원가 측정과 구별된다.

④ X: 일정한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한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이 선택은 단기매매목적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한 조건부대가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분상품 투자에 허용된다. 선지의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이를 취소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말 결산 중 다음 항목에 대한 기말수정분개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된 기말수정분개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1년 7월 1일 1년치 보험료 ₩120,000을 현금지급하고 전액 선급보험료로 처리하였다.
◯ 20×1년 1월 1일 자산으로 계상된 소모품 ₩200,000 중 12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은 ₩100,000이다.
◯ 20×1년 3월 1일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24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① ₩60,000 증가
② ₩100,000 증가
③ ₩60,000 감소
④ ₩200,000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누락된 비용 160,000원을 인식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임대료수익 40,000원을 차감해야 한다. 수정분개를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은 200,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기말수정분개는 현금의 지급·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는 절차이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누락된 비용을 인식하거나 과다 인식한 수익을 줄이면 감소한다.
기간은 문제의 조건대로 월할 계산한다.

보험료: 7월 1일 지급액 120,000원은 전액 자산인 선급보험료로 기록되어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경과한 6개월분을 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당기 보험료는 $120{,}000 \cdot \frac{6}{12} = 60{,}000$원이다. 보험료를 차변에, 선급보험료를 대변에 각각 60,000원 기록하며,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60,000원 감소한다.

소모품: 자산으로 기록된 200,000원 중 기말에 남은 금액은 100,000원이므로, **당기에 사용한 금액**은 200,000 − 100,000 = 100,000원이다. 소모품비를 차변에, 소모품을 대변에 각각 100,000원 기록하며,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100,000원 감소한다.

임대료: 3월 1일 받은 1년치 임대료 240,000원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의 대가이다. 당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다음 연도 1~2월분은 선수수익**으로 남겨야 한다. 이미 전액 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미경과분 $240{,}000 \cdot \frac{2}{12} = 40{,}000$원을 수익에서 차감한다. 임대료수익을 차변에, 선수임대료를 대변에 각각 40,000원 기록하며, 수익 감소로 당기순이익은 40,000원 감소한다.

합계: 수정분개에 따른 당기순이익 변동액은 −60,000 − 100,000 − 40,000 = −200,000원이다. 따라서 수정 전보다 당기순이익이 200,000원 감소하며,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